



##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 설화의 양상과 그 의미

A Study on the Patterns and Significance of Tales in the Materialization Type of Dragon Sacredness in Samgukyusa

---

저자  
(Authors) 박다원  
Park Da-won

출처  
(Source) [어문학 128](#), 2015.6, 111-158 (48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128](#), 2015.6, 111-158 (4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문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83757>

APA Style 박다원 (2015).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 설화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128, 111-15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10 15:4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 설화의 양상과 그 의미

박 다 원\*

## 〈차례〉

- |                     |                         |
|---------------------|-------------------------|
| 1. 문제제기             | 3. 용성(龍聖) 구현 설화의 의미     |
| 2. 용성(龍聖) 구현 설화의 양상 | 4. 용성(龍聖) 제거 설화와와의 상관관계 |
| 2.1. <만파식적> 설화      | 5. 결론                   |
| 2.2. <원성대왕> 설화      |                         |
| 2.3. <진성여대왕거타지> 설화  |                         |

## 1. 문제제기

우리 민족의식 속에 용은 四靈이라 하여 영적인 동물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지배해왔다. 용에 대한 인식은 하나의 신앙을 형성하여 용을 대상으로 한 신앙행위의 근원이 되었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많은 신화와 전설들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었다.<sup>1)</sup> 특히 신화와 전설들은 많은 장소와 관련되어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는 성소로 여겨져 지상의 속된 곳과는 달리 생명력이 솟아나는 장소였다. 즉 성은 숭고한 유혹임과 동시에 자칫하면 큰 화를 자초하는 곳이기도 하다.<sup>2)</sup> 때문에 용설화에서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성(聖)과 속(俗)<sup>3)</sup>의 경계이다. 설화에서 등장하는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신월균, 서영대·송화섭 엮음, 『용, 그 신화와 문화』, 민속원, 2002, 245쪽.

2) M. 일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 한길사, 2008, 24쪽.

3) 위의 책(M. 일리아데, 이은봉 옮김, 2008)에서의 성(聖)과 속(俗)의 정의는 좋은 참조가 된다.

용의 모습에서 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신앙의 대상<sup>4)</sup>이 되고, 속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신성은 제거되기 마련이겠다. 『삼국유사』 용설화 또한 성과 속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삼국유사』 소재 설화에 등장하는 용이 다양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난다는 것<sup>5)</sup>은 여러 의식들이 설화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설화는 인간과 동물 또는 사물과의 교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교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실에서 인간과 동물 또는 사물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한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설화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들의 교섭이 이루어진다.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나 설화를 듣고 있는 청자 또한 이들의 교섭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설화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신화적 사고<sup>6)</sup> 때문이다. 신화적 사고는 감정적인 사고이며 인간을 통해 직관되어 나타나는 표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sup>7)</sup>

때문에 신화적 사고의 개입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설화는 다른

- 
- 4) 龍은 초기 설화에서는 다분히 신화적 상징으로 표상되었다. 특히 비범한 인물을 용과 인간의 교혼에 의해서 탄생시킴으로써 인간을 신화하거나 혹은 영웅화하고 또 그렇게 탄생된 신인을 유기시키거나, 신화적 교아로 유랑시킨 후 사람들에게 구조되게 하여 왕이거나 비범한 인물로 확인하는 통과의례의 전형을 보여 준다(洪慶杓, 『龍神說話와 그 象徵體系 試攷』, 『韓國傳統文化研究』 第1輯,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5, 259~281쪽). 여기에서 홍경표의 논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 5) 용설화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설화 내에서 용과 관련된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기로 한다.
- 6) 다음 신화적 사고의 두 가지 개념은 인물층위 고찰의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원시적 사고 또는 원초적 사고로 상상력으로써 통일적·포괄적인 세계상을 구체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파악하여 인생의 갖가지 일들에 총체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주로 주술적·종교적인 갖가지 의례와 결합하여 총체적으로 의미와 질서가 부여된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를 정립케 한다.”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림책들, 2004, 47~48쪽)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어울리던 신화시대의 의식을 표방한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화시대의 질서는 무너졌지만, 신화시대의 의식은 인간과 자연의 상동성을 소망하거나 그런 상동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표출되곤 한다.” (신태수, 『殊異傳』 逸文의 神話의 性格과 교환 가능성의 실현 양상』, 『어문학』 85, 한국어문화회, 2004, 194쪽)
- 7) 김내균의 논문에서 ‘신화론적 사고를 행한 사람들은 분명 자신들이 지니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사유방식을 가지고 해답을 얻고자 시도하였다’고 하고 있다. 즉, 신화적 사고의 이해가 가능하다면 신화적 사고를 행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유방식의 모색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시사로 생각된다. 김내균, 『哲學的 思惟 이전의 神話의 思考』, 『철학탐구』 10,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1993, 47~48쪽.

모습을 떨 여지가 있다. 가령 신화적 사고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면 원초적 사고<sup>8)</sup>가 풍부하게 담겨 있을 것이고, 신화적 사고가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과학적·합리적 사고에 의해 원초적 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즉, 설화가 화자나 편찬자 의식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편찬자의 서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편찬자의 서술에만 얽매어서는 안 된다. 매몰된 목소리를 최대한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술층위와 인물층위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sup>9)</sup>고 한 것처럼 편찬자의 서술에만 주목해 설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서술에 의해 갈무리되어 숨겨진 목소리들을 밝혀내야만 할 것이다.

서술층위에 의해 은폐된 목소리가 바로 인물층위다. 서술층위에서는 화자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원래 존재하고 있던 인물층위가 서술층위에 의해 가려졌으니 서술층위를 통해 인물층위를 역추적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서술층위와 인물층위를 살펴볼 때 하나의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대칭적 세계관<sup>10)</sup>이다. 용설화에서 용은 인간과 그 밖의 자연물 등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교감하고 있다. 대칭적 세계관이 용설화에서 주를 이루기에 이 관점에서 설화를 분석해야만 온전한 분석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그 밖의 자연물 등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교감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환상적인 것이다. 환상적인 것은 문화의 말해지지 않은 부분, 보이지 않는 것, 즉 지금까지 침묵당하고 가려져왔으며 은폐되고 부재하는 것으로 취급되어온 것들을 추적한다.<sup>11)</sup> 때문에 서술층위와 인물층위에서 분석은 침묵당하고 가려지고 은폐되고 부재한 것을 추적하는 좋은 장치가 된다. 『삼국유사』

8) 인간과 동물, 인간과 사물, 인간과 귀신 등의 교섭이 제약 없이 자유롭다.

9) 신태수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서술층위는 화자의 목소리이고, 인물층위는 화자에 의해 은폐된 인물의 목소리이다.

신태수, 『『三國遺事』 <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402~403쪽.

10) 주체와 객체가 대등하고 주체와 객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시각이나 관점.

신태수, 『<桃花女·鼻荊郎> 說話의 構成原理와 對稱的 世界觀의 向方』, 『韓民族語文學』 45, 2004, 15~16쪽.

11) 로지 객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문학동네, 12~13쪽.

소제 용설화는 성(聖)과 속(俗)의 표출 정도에 용성(龍聖) 구현형<sup>12)</sup>과 용성(龍聖) 제거형<sup>13)</sup>, 타성(他聖)·용성(龍聖) 융합형<sup>14)</sup>의 세 가지 유형을 가진다. 이들 유형을 서술층위와 인물층위로 분석한다면 온전한 설화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용성(龍聖) 구현형 설화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다. 의미 고찰이 잘 이루어진다면, 『삼국유사』 소제 용설화의 나머지 유형에 대한 의미 파악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용성(龍聖) 구현형 설화의 양상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용성(龍聖) 구현 유형을 살펴본다. 용성(龍聖) 구현에 속하는 자료는 용이 상대자인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설화들이다. 구현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자료에서는 용의 성(聖)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용성(聖)이 두드러지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용성(龍聖) 구현의 설화들에서 용과 상대자인 인간은 중국에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동등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용성(龍聖)이 구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기이 제2의 <만파식적>,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 이러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 <만파식적>은 신문왕이라는 지배계층에게 만파식적이라는 보물을 전해주는 역할로 용이 등장한다. 반면

12) 성(聖)이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설화들이다. 이들 설화에서 용은 용성(龍聖)의 구현을 통해 상대자인 왕의 권위를 높여준다. 때문에 이들 설화를 용성(龍聖) 구현형이라 하겠다.

13) 성(聖) 보다는 속(俗)이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설화다. 이 설화에서 용의 상대자인 노인은 지속적으로 권위를 향상해 나간다. 반면 용은 노인, 즉 인간에 의해 성(聖)이 제거되는 특징을 가진다. 용이 인간에 의해 용성(龍聖) 제거가 이루어지므로 이 설화를 용성(龍聖) 제거형이라 한다.

14) 성(聖)과 속(俗)이 동시에 나타나는 설화이다. 이들 설화에서 용은 타성(他聖)인 불교 신앙과 같듯하기도 하고 결탁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는 타성(他聖)인 불교신앙에 의해 두 성이 융합하는 특징을 가진다. 융합은 녹아서 하나로 합쳐짐을 의미한다. 용성(龍聖)이 타성(他聖)과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이들 설화를 타성(他聖)·용성(龍聖) 융합형이라 하겠다.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용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청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 나온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용의 위상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위상이 높지 않기에 다른 존재에 의지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용의 위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 용은 낮은 위상을 보인다. 그런데 두 자료들에서도 용의 위상 차이가 난다. 차이가 드러나므로 차이의 연원이 어디인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 2.1. <만파식적> 설화

<만파식적>의 설화는 신문왕이 용에게 받은 보물로 인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설화에서는 갈등 상황이 제시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특히 신문왕이 보물을 소유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너무나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다.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쉽게 제시한 것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어려운 문제를 쉬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논법이 왜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화자는 설화에서 신문왕이기에 문제를 쉬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점이 화자가 신문왕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화자의 논법을 견어내야만 온전한 설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화자의 논법을 견어내는 방법은 서술층위에 감춰진 인물층위를 감지하는 것이다. 서술층위와 인물층위의 측면이 동일한 시각일 경우도 존재하겠지만 이것들이 이질적인 시각을 보일 경우도 있다. 동일한 시각인 경우 서술층위 측면에서의 분석만으로 설화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질적인 경우에는 서술층위 측면만 분석한다면 인물층위의 측면이 매몰되기에 온전한 분석이 되지 못한다. 서술층위에 보이는 인물층위를 끌어올려 분석을 해야 하겠다.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만파식적>의 구성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앞일에 대한 암시를 다룬 대목이고, 둘째 부

분은 암시가 실현되는 대목, 셋째 부분은 용에게 증여받은 검은 옥대가 진용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진용으로 인해 생긴 용연의 유래를 제시한 대목이고, 넷째 부분은 <만파식적>의 영험함을 다룬 대목이다. 네 부분은 신문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첫째 부분에서는 기이한 일의 발생으로 인한 암시를 준다고 하고, 둘째 부분에서는 기이한 일의 발생으로 인한 암시가 실현되었다고 하고, 셋째 부분에서는 왕이 진용으로 된 검은 옥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넷째 부분에서는 왕이 현재 또는 다가올 문제에 대해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네 부분이 각기 징조로써의 권위 향상, 실현으로써의 권위 향상, 증여로써의 권위 향상, 소유로써의 권위 향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징조, 실현, 증여, 소유가 계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권위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징조로써의 권위보다는 실현으로써의 권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실현으로써의 권위보다는 증여로써의 권위가, 증여로써의 권위보다는 소유로써의 권위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권위 향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기로 한다.

<만파식적>15)

첫째 부분 : 앞일에 대한 암시

- 1) 이듬해 임오년 5월 초하루 해관 박숙청이 말하기를 동해바다 가운데 작은 산이 감은사 쪽으로 둥둥 떠서 왔다갔다 한다고 했다.
- 2) 일관 김춘질이 점을 치니 선대 부친인 문무왕은 용이 되어 삼한을 수호하고 김유신 공은 33천의 한 분으로 인간에 내려와 대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두 성인이 덕을 함께 해 성을 지키는 보물을 내리려 하니 해변으로 행차한다면 큰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둘째 부분 : 앞일에 대한 암시가 현실화

- 1) 왕이 기뻐 그 달 7일 이견대로 행차하여 감은사 쪽으로 떠있는 작은 산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했다.

15) 一然, 『三國遺事』, <万波息笛> 紀異 第二.

- 2) 심부름 갔던 사람이 말하기를 산 모양은 거북이 머리처럼 생겼고 그 위에 대나무 막대기가 한 개 있어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하나로 합쳐진다고 했다.
- 3) 왕은 감은사에서 묵는데 이튿날 점심 때 보니 대나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데,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며 7일 동안이나 어두웠다.
- 4) 그 달 16일에 가니 용 한 마리가 검은 옥대(玉帶)를 받들어 바친다.
- 5) 왕은 용에게 산이 대나무와 함께 혹은 갈라지고 혹은 합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물었다.
- 6) 용이 대답하기를 비유하여 말하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이라 했다.
- 7) 또 선대부왕은 큰 용이 되고 유신은 천신(天神)이 되어 큰 보물을 자신으로 하여금 바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 8)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비단과 금과 옥을 주고는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바다에서 나왔다.
- 9) 그때 산과 용은 갑자기 모양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다.

셋째 부분 : 용에게 증여받은 검은 옥대가 진용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진용으로 인해 생긴 용연의 유래 제시

- 1) 왕이 감은사에서 묵고 17일에 지림사(祇林寺) 서쪽 시냇가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고 점심을 먹었다.
- 2) 태자 이공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와서 하례하고는 천천히 살펴보고 옥대의 여러 쪽은 모두 진짜 용이라고 말했다.
- 3) 왕은 어찌 태자가 그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 4) 태자는 하나를 떼어 물에 넣어 보라고 했다.
- 5) 이에 원편 둘째 쪽을 떼어서 시냇물에 넣으니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 땅은 못이 되어 용연이라고 불렀다.

넷째 부분 : <만파식적>의 영험함 제시

- 1) 왕이 대궐로 돌아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천존고(月城天尊窟)에 간직해 두었다.
- 2)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았다.
- 3) 이 피리를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부르고 국보(國寶)로 삼았다.

첫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문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긴장

과 이완의 교차적 경험을 통해 조성된다. 1)은 긴장에 해당된다. 산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해바다 가운데 작은 산은 동동떠서 왔다갔다 한다’하여 고정되지 않고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는 산이 움직인다는 것은 비일상적인 일이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sup>16)</sup>을 고조시킨다. 한편, 2)는 이완에 해당된다.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왕은 일관 김춘질에게 명령하여 점을 치게 한다. 문무왕과 김유신이 신문왕에게 선물을 주려 함이라는 점괘를 통해 긴장이 해소된 이완의 상태가 된다. 1)은 긴장이고 2)는 이완이니, 양자는 대조의 국면을 보인다. 대조의 결과는 신문왕의 권위가 향상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고인이 된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에게 보물을 받을 수 없다. 즉, 신문왕이기에 보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긴장과 이완은 권위를 향상하는 수단이 된다.

둘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문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점괘의 실현에서 비롯된다. 이 실현은 첫째 부분의 긴장과 이완을 내포한다. 왕은 점괘에 따라 동해바다로 행차하여 동해바다에 떠다니는 산을 살피게 한다. 산에는 대나무가 막대기가 있는데 낮에는 돌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하나로 합쳐졌다. 왕이 점심때 감은사에서 산을 보니 대나무가 합쳐졌다. 그러자 7일 동안 어둠이 찾아온다. 7일 동안의 어둠은 다시 긴장을 고조시킨다. 어둠이 걷히자 용이 등장한다. 용의 등장은 고조된 긴장을 이완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점괘를 실현을 보여준다. 권위의 향상은 단계를 거듭한다. 첫째의 긴장과 이완의 단계는 한층 더 높은 단계로 거듭난다. 거듭되는 긴장과 이완에 결과 점괘가 실현된다. 점괘의 실현으로 권위 향상은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셋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문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증여의 과정을 통해 조성된다. 검은 옥대는 용으로부터, 즉 선대왕인 문무왕과 김유신 장군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다. 죽은 선대왕과 문무왕이 용을 통해 살아있는 왕에게 보물을 증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

16)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의 반복을 당연시한다. 하지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일이 발생하면 위축되어 긴장하게 된다.

지 않는다.<sup>17)</sup> 이치에 맞지 않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워 왕의 권위를 더욱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증여받은 검은 옥대가 진짜 용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왕은 비밀상적인 일을 경험하고 진짜 용을 가진 존재가 된다. 때문에 신문왕의 권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신문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소유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유가 곧 권위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는 없다. 상황제시를 통해 소유의 힘을 말하고 있다. 즉, 왕은 용이 일러준 데로 대나무를 꺾어와 피리를 만들어 붙였다. 그러자 2)에서처럼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왕은 적병을 물리치고, 병을 낫게 하고, 기상을 관장하는 능력을 <만파식적>을 통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점이 바로 그 근거이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파식적>이라는 보물의 소유가 왕의 권위를 향상하는 데 주안점이라고 하겠다.

신문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을 점검해보니, 단계와 단계 사이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즉, 첫째 부분의 권위 향상 위에 둘째 부분의 권위 향상이, 둘째 부분의 권위 향상 위에 셋째 부분의 권위 향상이, 셋째 부분의 권위 향상 위에 넷째 부분의 권위 향상이 놓인다. 화자가 신문왕이 모든 문제를 쉬이 해결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다. 유기적인 구성과 점층적인 권위 향상의 과정은 왕의 권위 향상에 정당성을 확보해주게 된다. 지배계층에게 적병과 득병, 기상 문제의 해결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배계층은 권력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sup>18)</sup> 이는 문제의 해결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신문왕은 용을 통해 <만파식적>을 소유해 어려움 없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해결한다. 왜 신문왕은 어려운 문제를 그토록 쉽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17) 현생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생은 받아들이기 힘든 공간이다. 물론 신에 의한 영적 경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생의 공간은 남득할 만한 공간일 수 있다. 용의 제시 또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설화에서 이러한 상황을 제시한 것은 비밀상적인 경험을 하는 왕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18) J. G. Frazer, 김상일 역, 『황금가지』, 을유문화사, 1996, 128쪽.

또한 서술층위에서 용은 왕의 권위 향상을 위해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서술층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언뜻 언뜻 보이는 용의 목소리가 그것을 말해준다. 용은 <만파식적>을 전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층위에선 신문왕의 행적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서술층위를 걷어내고 인물층위를 끌어올려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술층위에서 화자는 왕의 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첫째 부분에서 넷째 부분을 관통하고 있는 용 움직임의 정황이 포착된다. 서술층위는 화자의 목소리이다. 화자의 목소리를 걷어내고 인물의 목소리를 재구한다면 용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용의 행적

첫째 부분 : 용이 기이한 징조를 통해 왕의 무리에게 긴장을 야기시킨다.

둘째 부분 : 용이 7일 동안 어둠을 주어 왕의 무리를 다시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한 후 징조의 실현을 보여준다.

셋째 부분 : 용이 <만파식적>이라는 값진 것을 왕에게 증여한다.

넷째 부분 : 용이 전해준 <만파식적>으로 인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서술층위를 걷어내고 인물층위의 측면에서 용의 행적을 점검해보니 네 부분 모두에서 용의 행적이 포착된다. 첫째 부분에서 용은 기이한 징조<sup>19)</sup>를 보임으로써 왕의 무리에게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부분은 용이 기상을 관장<sup>20)</sup>하여 왕의 무리에게 긴장을 주고 난 후 등장하여, 징조의 실현을 보여준다. 셋째 부분에서 용은 <만파식적>을 왕에게 증여한다.<sup>21)</sup> 넷째는 셋째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19) 동해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산이 물결 따라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을 해관 박숙성이 왕에게 고한다. 고정되어 있는 산은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산이 움직인다고 하고 있으므로 긴장이 고조된다.

20) 용의 수신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신인 용이 물을 다스리고,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고, 천동 번개를 부리고, 그러다간 비를 내리곤 한다고 한 이해화의 논의가 좋은 참고가 된다(이혜화, 『龍사상과 한국고전문학』, 깊은샘, 1993, 23쪽). 결국 용은 수신으로 기상을 관장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21) 용이 왕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설화에서 용은 문무왕과 김유신이 보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 부분에서 보이는 행적이 모두 문무왕과 김유신이 한 일이라고 해야 마땅하나 실상은 아니다. 문무왕이 용으로 화했다는 데서

때문에 인과관계에 놓인다. 설화에서 용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용은 기상을 관장하고, 예언을 해주고, 그 예언이 실현되고, 값진 물건을 전해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보면 용은 왕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측면에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sup>22)</sup> <만파식적>의 서술층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용의 면모가 인물층위에 숨어 있었다. 인물층위에서 용은 신문왕에게 권위를 부여해주는 존재이다. 결국 신문왕의 문제 해결은 용에 의한 것이다. 대단한 능력을 보유한 용이기에 문제 해결이 간단할 수 있었던 거다. 실제로 신문왕 원년<sup>23)</sup>과 4년<sup>24)</sup>에 신문왕은 반역 세력 때문에 위기를 겪었다. 왕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위기를 극복하여야 했다. 왕의 임무는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려야 하는 것인데 갈등을 빚으면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 서술층위에서 용이 손뼉을 치는 원리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는 대나무도 합쳐진 연후에 소리가 나오는 것<sup>25)</sup>이라고 한 부분은 신문왕 당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를 가진 신문왕이 용이 되었다는 선대 부왕과 김

그 점이 드러난다. 때문에 네 부분에서 보이는 행적들은 용의 행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22) 신문왕이 만나는 용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각각의 용의 행적이 아니라 용 전체의 행적을 추적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23) 원년(681) 8월 8일에 소판 김흠돌·파진찬 흥원·대아찬 진공 등이 반락을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元年 八月 八日 蘇判 金欽突·波珍滄 興元·大阿滄 眞功 等 謀叛伏(伏)誅 <金富弼, 『三國史記』, 新羅 本紀 第八 <神文王> 元年>.
- 24) 4년(684) 겨울 10월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유성이 어지럽게 나타났다. 11월에 안승의 조카뻘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 있으면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무리들은 대문이 목베여 죽는 것을 보고서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하였는데, 맞서 싸우던 당주 궤실이 전사하였다. 그 성을 함락하여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금마군으로 삼았다(四年 冬十月 自昏及曙 流星縱橫 十一月 安勝 族子將軍大文 在金馬渚謀叛 事發伏誅 餘人見大文誅死 殺害官吏 據邑叛 王命將士討之 逆闕幢主逼實死之 陷其城 徙其人於國南州郡 以其地爲金馬郡 <金富弼, 『三國史記』, 新羅 本紀 第八 <神文王> 四年>).
- 25) 신문왕대는 화합의 실패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설화에서 손뼉 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화합이 성립되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 이러한 설화가 이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유신<sup>26)</sup>까지 언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왕은 용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한다. 이는 용의 행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용의 행적이 왕의 행적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이다.<sup>27)</sup> 용의 행적은 신문왕의 행적을 지배하고 있다. 왕의 무리가 보물을 얻는 과정은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sup>28)</sup> 이 설화의 공간은 용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용이 신문왕을 지배하고 있다. 용으로 인해 신문왕은 문제를 해결한다.

위엄의 부재와 혼란+〈만파식적〉의 획득 → 문제 해결

신문왕의 문제는 용을 만나는 기이한 경험을 통해 〈만파식적〉을 획득하게 되면서 일시에 해소된다. 위엄의 부재와 국가 평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신문왕은 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설화의 서술층위는 신문왕에 초점을 두고 신문왕의 왕권신장을 위해 용을 이용하고 있다<sup>29)</sup>고 하겠다. 설화의 인물층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서술층위에서 화자는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통해 용의 행적을 신문왕의 행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놓았으며 이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결국 용성(龍聖)이 구현되어 상대자인 왕이, 용과 동등한 권위를 지니게 된다.

26) 김유신을 33천의 아들이라고 한 부분을 두고 불교의 영향을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인간이 단결하여 힘을 합치는 상징인 〈만파식적〉으로서 호국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에 불교를 멀리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金鉉龍, 『韓國古說話論』, 새문사, 1994, 146쪽)고 한 논의는 설화가 불교의 영향을 벗어나 있다는 근거로 좋은 참고가 된다.

27) 용의 행적이 왕의 행적이 되었으므로 행적의 위치 바뀐이 생겼다. 때문에 옮겨갔다는 의미의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8) 〈만파식적〉 설화는 공간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간이 인물을 이끌어 보물을 전해줌으로 인물인 지배계층의 위상이 높아지지만 하층의 인물이 제시되지 않아 조화로운 공간이 되지는 못한다는 박다원의 논의를 참조하면 화자는 이 설화를 통해 상층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하겠다.

박다원, 『『三國遺事』 <惠通降龍>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 『韓民族語文學』 68집, 2014, 63-64쪽.

29) 설화의 주체자인 신문왕과 집권세력은 〈만파식적〉 설화를 창작하고, 흑옥대와 〈만파식적〉의 소유가 자신임을 드러냄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이동철의 논의는 참조할 만하다.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228쪽.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는 <만파식적>과는 다르게 용의 낮은 위상이 드러난다고 했다. 특히 <원성대왕>은 용이 전적으로 원성왕에게 의지하고 있기에 용의 위상이 가장 낮다고 보인다. <원성대왕>의 설화는 원성왕이 당나라 사신에게 잡혀간 용을 구해 온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원성왕이 당나라 사신에게 잡혀간 용을 도와준다고 하는 데서, 용과 당나라 사신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갈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갈등 표출의 근거를 포착하지 않을 수 없다. <원성대왕>은 용의 위상을 낮추는 행위화소의 비율이 더 높다. 하지만 용은 원성왕의 도움을 통해 호국용이라는 신분을 다시 회복하므로 용의 위상이 현저히 낮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용은 강한 힘을 가진 자에게 의존한다. 용이 당해 낼 수 없음에 상대도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판단되나, 용이 의존한 자가 승리하게 되므로 원성왕의 힘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원성대왕>은 상대자인 원성대왕이라는 지배계층에 의해 용의 문제가 해결된다.

대결의 양상은 설화마다 조금씩 차이를 지니고 있다. 이는 대등한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리라. 대등한 정도의 차이가 크다면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대등한 정도의 차이가 작을 경우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용과 당나라 사신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그런데 설화에서 용은 저항할 힘조차 없어 일방적으로 끌려간다. 때문에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서술층위에서 원성왕은 갈등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갈등을 보여야 하는데,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 왜 필연적인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인물층위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 2.2. <원성대왕> 설화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원성대왕>의 구성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북천신의 도움으로 왕이 된 원성왕의 능력을 다룬 대목이고, 둘째 부분은 만파식적의 영험함과 일본의 만파식적 소유 욕망을 다룬 대목이고, 셋째 부분은 당나라 사신에게 잡혀간

호국용을 다룬 대목, 넷째 부분은 원성왕이 당나라 사신에게 잡혀간 호국용을 구해오는 대목이다. 네 부분은 원성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첫째 부분에서는 북천신의 조력을 받는 자라고 하고, 둘째 부분에서는 영험함을 지닌 만파식적을 소유했다고 하고, 셋째 부분에서는 호국용의 아내가 도움을 구하는 존재라고 하고, 넷째 부분에서는 당나라 사신에 의해 빼앗긴 용을 구출했다고 한다.

네 부분이 각기 신의 조력을 받는 자로써의 권위 획득, 소유로써의 권위 획득, 조력자로써의 권위 획득, 구출자로써의 권위 획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신의 조력, 소유, 조력자, 구출자가 계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권위의 단계가 점차적으로 향상된다. 신의 조력으로써의 권위보다는 소유로써의 권위가, 소유로써의 권위보다는 조력자로써의 권위가 더 영향력을 가지고, 조력자로써의 권위보다는 구출자로써의 권위가 더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권위 향상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원성대왕><sup>30)</sup>

첫째 부분 : 북천 신의 도움으로 왕이 된 원성왕의 능력

- 1) 원성대왕이 각간에 있을 때 머리에 썼던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12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었다.
- 2) 왕이 꿈에서 깨어나 사람을 시켜 점을 쳐보니 매우 불길한 징조로 나왔다. 왕이 근심하여 출입을 삼가니 아찬 여삼이 왕에게 꿈이 길몽임을 말하고 북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왕위에 오를 수 있다고 일러준다.
- 3) 선덕왕이 세상을 뜨자 나라 사람들이 주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궁궐로 맞아들이고자 했으나 북천의 냇물이 불어나 원성왕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
- 4) 좋은 꿈을 꾸는 것이 들어맞았다.
- 5) 대왕은 곤궁과 영달의 변화를 잘 알아 신공사녀가를 지었다.

둘째 부분 : <만파식적>의 영험함과 일본의 <만파식적> 소유 욕망

- 1) 아버지 대각간 효양이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만파식적>을 왕에

30) 一然, 『三國遺事』, <元聖大王> 紀異 第二.

게 전했다.

- 2) 왕이 <만파식적>을 얻었으므로 하늘이 내리는 은혜를 두텁게 받아서 그 덕이 널리 빛났다.
- 3) 정원2년 병인 10월 11일에 일본 왕 문경이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다가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퇴각시켰다.
- 4) 사신을 보내 금 50냥으로 그 피리를 달라고 했으나 왕은 피리가 없다고 말한다.
- 5) 이듬해 7월 7일 다시 사신을 보내 금 1천냥을 주면서 피리를 달라고 했으나 왕은 금을 받지 않고 은 3천냥을 주어서 돌려보낸다.
- 6) 8월에 사신이 돌아가자 피리를 내황전에 간직하였다.

셋째 부분 : 당나라 사신에 의해 잡혀간 용

- 1) 왕이 즉위한 지 11년 올해에 당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 한 달을 머물러 있다 돌아갔다.
- 2) 하루 뒤에 두 여자가 내정에 나와서 자신들은 동지·청지에 사는 두 용의 아내라고 했다.
- 3)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 남편인 두 용과 분황사 우물에 있는 용까지 작은 고기로 변화시켜 통 속에 넣어갔으니 왕에게 나라를 지키는 용들을 구해달라고 했다.

넷째 부분 : 원성왕이 잡혀간 호국용을 다시 구해옴

- 1) 왕은 하양관까지 쫓아가서 친히 연회를 열고 하서국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 2) 세 용을 당장 내어 놓으라고 말했다.
- 3) 하서국 사람들이 고기 세 마리를 내어 세 곳에 각각 놓아 주자 물속에서 한 길이나 뛰고 기뻐하면서 가 버렸다.
- 4) 당나라 사람들은 왕의 명철함에 감복했다.

첫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원성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비현실과 현실, 흉몽과 길몽이라는 대립적 요소의 교차로 조성된다. 1)에서 머리에 썼던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12줄 가야금을 들고 천관사로 들어간다는 꿈은 비현실적 요소이다. 비현실은 두 인물을 통해 각기 다른 징조로 해석된다. 하나는 불길한 징조, 다른 하나는 길한 징조이다. 몰래 북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자, 결국 길한 징조가 현실에서 실현되어 각간이라는 신분이 왕의 신분으로 격상된다. 이는

비현실과 현실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다시 홍몽과 길몽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넣어 자연스럽게 현실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즉, 원성왕의 등극이 신의 도움에 의한 비현실적인 것이었으나 이러한 장치들로 인해 현실화된다. 때문에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둘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원성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만파식적>의 소유에 의해 이루어진다. <만파식적>은 앞서 살펴보았던 <만파식적>의 설화에서도 등장했다. <만파식적>만 소유한다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둘째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파식적>을 원성왕이 소유했기 때문에 원성왕의 권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권위는 첫째 부분에서의 비현실의 현실화를 통한 권위 향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현실의 현실화를 가능하게 한 원성왕이기에 <만파식적>을 소유하여 각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셋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원성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용의 조력자가 됨으로써 조성된다. 원성왕은 신의 조력을 받는자, <만파식적>까지 소유한 자이다. 때문에 설화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원성왕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할 수 없다.<sup>31)</sup> 더군다나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호국용이 도움을 청해오기까지에 이른다. 호국용은 나라를 지키는 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라를 지키던 용은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에 의해 잡혀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나약한 용이라고 해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약한 용이라도 있어야 한다. 나약한 용의 처들은 원성왕에게 호국용의 처지를 알려준다. 즉, 용이 의지하는 자가 상대자인 원성왕이 된다. 원성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때문에 원성왕에 의해서만 호국용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부분에서 나타나는 원성왕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용을 구출함으로써 조성된다. 원성왕은 두 부인의 부탁을 듣고 하양관으로

31) 신의 조력으로 왕위를 계승한 원성왕이기에 언제나 그의 뒤에는 신의 조력이 따르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만파식적>을 가진 자이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기에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겠다.

간다. 앞서 세 단계를 통해 원성왕의 권위는 점차적으로 향상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원성왕의 권위 향상이 정점을 찍는 단계라고 하겠다. 원성왕은 하서국 사람에게 명령하여 용을 풀어 주도록 만들어 버린다. 하서국 사람들은 원성왕의 명령에 굴복하여 용을 풀어준다. 또한 이 장면을 지켜본 당나라 사람들은 왕의 명철함에 감동하여 충심으로 복종하게 된다고 했다. 바로 이 상황이 원성왕의 권위 향상이 정점을 찍는 단계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결국 원성왕은 당나라 사람들이 복종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권위 향상의 양상을 점검해보니, 단계와 단계 사이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다. 즉, 첫째 부분에서 나타난 권위 위에 둘째 부분의 권위가, 둘째 부분의 권위 위에 셋째 부분의 권위, 셋째 부분의 권위 위에 넷째 부분의 권위가 있으니 넷째 부분에서 나타난 권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유기적 구성과 점층적인 권위 향상의 과정은 왕의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신의 조력을 받는 자이며, <만파식적>을 소유한 자이고, 조력자이며, 구출자라는 그의 면모는 왕의 권위 향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서 개운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보인다. 첫째 부분에서 넷째 부분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용의 행적이 그것이다.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에서는 감춰져 있고, 셋째 부분과 넷째 부분에서는 전면에 드러나 있다. 감춰져 있다고 해서 행적이 미미한 것이 아니고 전면에 드러난다고 해서 행적이 도드라지는 것도 아니다. 감춰지거나 전면에 드러나거나 하는 것은 서술층위를 건너낸 인물층위의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용의 행적으로 인물층위를 살펴야 한다.

#### 용의 행적

첫째 부분 : 북천의 신인 용이 넷물을 불어나게 하여 원성왕이 즉위한다.

둘째 부분 : 용이 전해준 <만파식적>으로 인해 나라가 평안하다.

셋째 부분 : 나라를 지키는 용이 당나라 사신에 의해 잡혀간다.

넷째 부분 : 잡혀간 용이 원성왕에 의해 풀려나 다시 나라를 지킨다.

인물층위에서 나타나는 용의 행적들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용의

행적이 감춰져 있다. 복천신<sup>32)</sup>인 용으로 인해 냇가의 물이 불어났다.<sup>33)</sup> 불어난 물 때문에 원성왕이 등극하게 된다. 복천신인 용의 도움으로 등극이 가능했기에 신의 조력을 받는 자의 권위를 그대로 부여받을 수 있다. 둘째 부분에서는 <만파식적>에서 알 수 있듯이 용이 전해준 <만파식적>을 통해 나라가 평안하다. 나라 평안의 근원을 찾으면 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용이 선사한 <만파식적>의 소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 원성왕은 소유한 자의 권위를 얻었다. 결국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은 용의 행적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만파식적>에서와 같이 용의 행적이 왕의 행적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화자의 목소리로, 서술층위가 설화를 지배하고 있어 인물층위인 인물의 목소리는 은폐된 상황이라고 하겠다. 또한 서술층위가 설화를 지배하고 있으니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통해 왕의 위엄이 가중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셋째 부분은 용의 행적이 드러나 있다. 나라를 지키는 용이 너무나 허무하게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에 의해 잡혀간다. 넷째 부분은 하서국 사람들이 잡아간 호국용을 원성왕이 호통치는 것만으로 쉽게 풀어준다고 했다. 또 이 장면을 지켜본 당나라 사람들이 왕에게 탄복한다고 하고 있다. 용의 행적이 드러난 셋째 부분과 넷째 부분에서 우리는 갈등의 양상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분은 용과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 넷째 부분은 왕과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의 갈등 양상이다. 둘은 치열한 갈등 상황을 보여야 한다. 나라를 지켜야하는 용을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가져가려고 하고, 왕은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이 가져간 용을 되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서술층위에서는 갈등 양상이 첨예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32) 복천의 신은 龍蛇라 볼 수 있으며, 용사의 비호를 받는 존재라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원성왕에게 있어서는 그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였다는 논의는 좋은 참조가 된다.

李京和, 「한·일 龍蛇 설화의 비교 연구-왕권의 확립과 세속으로의 변용-」, 韓國外國語大學校 日語日文學科 博士學位論文, 2014, 49쪽.

33) 용은 바다, 강, 못 등 물에서 나고 물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수신(水神)으로 알려져 있다(신월균, 서영대·송화섭 엮음, 앞의 책, 2002, 256쪽). 앞의 논의를 참조하면, <원성대왕>에서 복천신 또한 수신인 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갈등이 보여야 할 부분에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언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호국용은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에 의해 너무나 쉽게 잡혀가고 원성왕에 의해 너무나 쉽게 풀려난다. 쉽게 잡아간다면 쉽게 풀어주지도 못한다.<sup>34)</sup> 호국용은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약한 용은 나라를 지키기가 어렵다. 호국용을 나약한 용으로 말하는 것은 화자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화자가 의도적으로 나약한 용을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를 당대 역사와 접목하여 고찰한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

왕은 두 용의 아내가 세 마리 용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러 오기 전까지 까맣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왕에게 호국용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왕을 도와 나라의 평안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호국용이 사라지면 왕 또한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실제 원성왕은 즉위 당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sup>35)</sup> 뿐만 아니라 당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당나라는 신라를 위협할 만큼 큰 힘을 가졌다.<sup>36)</sup> 원성왕은 당나라에게 용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을 알고 난 후에야 하양관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 정황만 보더라도 왕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없다. 더구나 당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

34) 갈등 양상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잡아가고, 풀어주고의 관계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설화에서는 왕 >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 > 용이라는 힘의 차이를 보여준다. 서술층위에서 드러나 있듯이 왕과 당나라 사신·하서국 사람들 사이에는 엄연한 힘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왕이 지배하는 나라의 호국용을 너무나 쉽게 제압하여 데리고 간다는 설정은 감춰진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35) ‘선덕왕이 세상을 뜨자 나라 사람들이 주원을 받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궁궐로 맞아들이려고 하였다. 그의 집이 북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넷물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게 되자 왕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三國遺事』, <元聖大王> 紀異 第二)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성왕은 기반 세력이 약한 왕이었다. 때문에 이 설화에서 보이는 왕의 권위는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6)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원성왕2년 김원전을 당나라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으며, 8년 가을 7월에 당나라 사신을 보내 미녀 김정란을 바쳤다(二年 遣金元全入唐 進奉方物, 八年 秋七月 遣使入唐), 獻美女金井蘭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 本紀 第十 <元聖王> 二年, 八年>.’ 이 사실을 통해 원성왕이 당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권위를 내세웠다는 기록은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는 넷째 부분의 4)와 같이 원성왕을 칭송한다.<sup>37)</sup> 결국 실제 왕은 많은 능력을 보유한 존재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 마리의 호국용 또한 당나라 사신에게 잡혀갈 만큼 힘이 쇠락해 있었다고 보인다.<sup>38)</sup>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원성왕의 재위기간 동안 많은 자연재해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9)</sup> 원성왕은 정치적 부담감과 백성들의 구휼 등의 문제에 당면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재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원성왕의 셋째 부분과 넷째 부분은 화자의 시각에서 해석한 부분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서술층위에서 용의 행적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의 행적이 보인다고해서 인물층위가 더 지배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셋째 부분과 넷째 부분에서는 용이 권위 있는 모습 → 약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데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변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서술층위인 화자의 목소리가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보다 더 지배적으로 작용한

- 
- 37) 이범교는 이 부분을 합리적인 원성왕의 지혜와 명철함만으로는 나라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다(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2005, 406쪽)고 해석하기도 한다. 원성왕이 명철함과 지혜를 겸비했다면 용이 잡혀간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원성왕은 두 용의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야 호국용이 사라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이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 38) ‘정원 2년 병인 10월 11일에 일본 왕 문경이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다가 신라에 <만파식적>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퇴각시켰다(『三國遺事』, <元聖大王> 紀異 第二).’는 기록이 있으나 삼국사기 원성왕 2년 기록에는 전하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삼국유사의 원성왕 기록은 설화 담당층이나 편찬자를 통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9) 원성대왕 2년 7월에 자연재해가 있어 9월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3년 봄 2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으며 가을 7월에는 누리가 곡식을 해쳤으며 4년 가을에는 나라 서쪽 지방에 가뭄이 들고 누리가 발생하였으며 도적이 많이 일어났다. 5년에는 한산주 백성들이 굶주렸다. 가을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6년 봄에는 크게 가물었다. 7년 이찬 재공이 반역하다가 목이 베여 죽임을 당했으며 겨울 10월에는 서울에 눈이 세자 내렸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다. 11월에 서울에 지진이 났다. 8년 가을 7월에 당나라 사신을 보내 미려 김정란을 바쳤다. 9년 가을 8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벼가 쓰러졌다. 10년 봄 2월 지진이 일어났다. 11년 여름 4월에 가물었으며 가을 8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12년 봄에 서울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번졌다. 13년 가을 9월에 나라 동쪽 지방에 누리가 곡식을 해쳤고 홍수가 나서 산이 무너졌다. 14년 여름 6월에 가물었다.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 本紀 第十 <元聖王>.

다고 해야 옳다. 용의 행위가 드러나니 화자는 용의 행위를 축소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만 했다. 때문에 화자는 셋째와 넷째 부분에서 ‘대상의 교체’라는 구성을 취한다. 나약한 원성왕 → 나약한 용으로 대체하는 ‘대상의 교체’라는 구성을 취해야만이 원성왕의 권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서술층위에서는 원성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장본인은 용이다. 결국 용성(龍聖)의 구현으로 상대자인 왕이 용과 대등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

### 2.3. <진성여대왕거타지> 설화

<진성여대왕거타지> 역시 <원성대왕>과 마찬가지로 나약한 용의 모습이 보인다. <진성여대왕거타지>의 설화는 첫째 부분인 왕거인 이야기와 둘째 부분인 거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왕거인과 왕실 그리고 국민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신라 내부의 이야기며 둘째 부분은 거타지와 왕실세력·서해용·사미승·당나라 황실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신라 외부의 이야기다. 또 첫째 부분에서는 왕거인이 하늘에 의해 풀려났다는 것 말고는 해결된 것이 없다. 반면 둘째 부분에서 거타지는 서해용의 목숨을 구해 주어 아내를 얻고 당나라 황실에게 융숭한 대접까지 받게 된다. 서해용과 신라 왕실 뿐만 아니라 거타지 개인의 문제 또한 동시에 해결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편찬자 일연이 고의적으로 두 이야기를 조합했다는 사실에 힘을 실어준다. 작품 내의 배경과 인물 그리고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대립 구도를 설화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째 부분의 왕거인은 지식인으로 상층을 대표하는 반면 둘째 부분의 거타지는 궁수로 하층을 대표한다. 첫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은 왕거인 일인에 한정되어졌으나 둘째 부분에서는 문제 해결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양 극단의 양상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편찬자는 바로 이러한 구도를 통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진성여대왕거타지>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첫째 부분은 다시 2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A는 진성여왕대에 정사가 어지러워 왕거인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는 대목이고, B는 억울한 왕거인이 하늘에 호소하자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대목이다. 문제 해결이 지식인 왕거인에게 한정되어 있고 왕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는 천신(天神)이다. 둘째 부분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A는 왕의 아들인 양패와 거타지 무리가 당나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꼼짝없이 곡도에 머물게 된다는 대목, B는 꿈에서 노인이 일러준 대로 거타지를 두자 양패 무리는 길을 떠나게 되었고 거타지는 남아서 용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대목이고, C는 용이 보답으로 거타지에게 딸을 주고 다른 용을 시켜 거타지를 호위해 당나라에 가게 하자 당나라 사람들이 거타지를 기이하게 여겨 연회를 베풀고 보물을 주어 본국으로 돌려보냈다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쌍방의 문제가 해결된다. 첫째 부분에서 보이는 일방의 문제 해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용의 문제는 거타지가, 왕거인·거타지 무리의 문제는 용이 해결한다. 그렇다면 둘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이 공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결국, 협력의 여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첫째 부분에서는 개인적 문제의 해결을 보이고, 둘째 부분에서는 집단의 문제 해결을 보인다. 두 부분이 각기 문제의 해결을 담고 있지만, 둘째 부분에서 문제 해결의 대상이 확대된다. 첫째 부분에서는 개인만 가능했고, 둘째 부분에서는 집단 모두 문제를 해결했으니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각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진성여대왕거타지>40)

첫째 부분 : 왕거인 이야기

A : 정사가 어지러워 왕거인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

- 1) 진성여왕과 유모인 부호부인, 위홍잡간, 3, 4명의 충신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해 정사가 어지러웠다.
- 2)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났다.
- 3) 나라 사람들이 걱정해 다라니로 은어를 만들어 길 위에 던졌다.
- 4) 왕과 권세 있는 신하들이 은어를 주워보고 왕거인을 의심하여 옥에 가두었다.

40) 一然, 『三國遺事』, <眞聖女大王居陀知> 紀異 第二.

- B : 하늘에 호소하여 옥에서 풀려난다.
- 1) 왕거인이 시를 지어 하늘에 호소했다.
  - 2) 하늘이 옥에 벼락을 쳐 왕거인이 옥에서 풀려났다.

둘째 부분 : 거타지 이야기

- A : 양패·거타지 무리가 당나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움직이지 못했다.
- 1) 왕의 막내아들 아찬 양패가 활 쏘는 군사 50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갔다.
  - 2) 배가 곡도에서 큰 풍랑을 만나 십여 일 동안 묵게 되었다.
  - 3) 근심하여 점을 치니 귀신 못에 제사를 지내면 괜찮다고 했다.
  - 4) 제사를 지내자 못의 물이 한 길 넘게 솟아 올랐다.
  - 5) 꿈의 꿈에 노인이 나타나 활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겨두면 순풍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 B : 거타지를 남겨주자 순풍이 불어 배가 나아갔고 거타지는 용을 위해 사미승(늙은 여우)을 죽였다.
- 1) 거타지를 남겨두자 갑자기 순풍이 불어 배가 나아갔다.
  - 2) 서해용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사미승을 거타지에게 쏘아 달라 부탁했다.
  - 3) 이튿날 동쪽이 밝아오자 중이 와서 주문을 외워 늙은 용의 간을 빼먹으려고 했다.
  - 4) 거타지가 활을 쏘아 중을 맞추자 늙은 여우로 변하여 땅에 쓰러져 죽었다.
- C : 용이 보답으로 거타지에게 딸을 주고 호위하여 당나라로 가자 당나라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연회와 각종 보물을 주고 돌려보냈다.
- 1) 서해용이 고마움의 표시로 딸을 꽃으로 변화시켜 그 품속에 넣어주고 두 용으로 하여금 거타지를 호위하게 했다.
  - 2) 당나라 사람들이 용의 호위를 받은 거타지를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추정해 연회를 베풀어주고 금과 비단을 주었다.
  - 3) 거타지는 본국으로 돌아와 꽃을 여자로 변하게 하여 함께 살았다.

첫째 부분은 A와 B로써 문제 해결이 개인에 국한됨을 보여준다. 먼저 A에서 펼쳐지는 신라 내부는 A-1)에서와 같이 매우 혼탁해졌다. 상층부가 혼탁하니 자연히 중층과 하층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A-2)에서와 같이 도적들이 별떼처럼 일어난 것은 신라 하층의

반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상층을 필두로 해 안정의 상태에서 불안정의 상태로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평시에 수직관계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불안정의 상태가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직 관계는 극도로 흔들리게 되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난다. 분열이 나타나면 상층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할 것이다. 반대로 지식인과 하층은 상층부를 개혁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상하층간의 위치 이동이 가능할 것이고 불안정했던 정세 또한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부분 A에서는 먼저 하층인의 노력이 보인다. 불안한 하층의 국민들은 A-2)와 같이 도적의 무리가 되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A-3)과 같이 은어를 길 위에 던져 분열의 조짐을 막아보려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두 번의 노력 모두 적극적인 개혁의 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개혁 시도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터이다. 개혁의 기미라도 포착된다면 상층부는 갖은 횡포로 하층인을 괴롭힐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 목숨을 잃게 된다. 힘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죽음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주술의 힘을 빌어 혼탁한 세상을 바로 잡아보려고 시도했다. 목숨을 담보로 도적떼를 일으키는 무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는 않았다.

A-4)에서와 같이 상층 지식인 왕거인이 A-3)의 주동자로 몰려 감옥에 갇히게 된다. 결국 하층인 국민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애꿎은 왕거인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상층인을 대표하는 왕실세력을 살펴본다. A-1)이 사건의 원인이 되어 A-2)가 발생했다. 하지만 왕실세력은 A-2)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A-3)의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고 A-4)에서처럼 일시적 해결을 꾀한다. 그러나 B는 A에서 보였던 문제 해결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B-1)에서 왕거인이 하늘에 호소하게 되면서 상층의 문제 해결은 미완의 것으로 마무리된다. 상층은 하층을 억압할 뿐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곧 사회는 상층부의 무기력함으로 인해 더욱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지식인 왕거인은 A-3)의 주동자로 몰려 위기에 처한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B-1)의 노력을 기울이고 B-2)처럼 위기를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지식인 왕거인은 상층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조차 없이 개인적 문제만을 해결해버렸다. 하늘에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구하였지만 신라 사회의 전반적인 혼탁함에는 아무 것도 기여해 주지 않는다. 천신을 대표하는 하늘 또한 B-2)처럼 지식인 왕거인을 구해주는 것은 하나 상층의 왕실세력이나 하층을 대표하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첫째 부분은 계층 각각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들 나름의 해결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부분 A에서 펼쳐지는 신라 외부는 A-1)과 같이 아찬 양패의 무리가 당나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왕실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양패가 왕의 막내아들이라는 기록에 비추어 양패 무리를 왕실 세력을 대표한다고 본다. 그들은 신라 내부에서 신라 외부인 당나라로 가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군사 50명이 대동된다. 상층을 대표하는 왕실세력인 양패무리와 하층을 대표하는 군사 50명의 동행인 것이다.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동행을 하는 데에는 문제41)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들의 동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뿐이다.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한다.

A-2)와 같이 풍량이 일어 십 여일을 당나라로 출발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채로 지낼 수밖에 없다. A-3)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점을 치고 A-4)처럼 제사를 지내자 못의 물이 솟아올라 사건 해결을 암시해준다. A-5)에서는 노인이 해결 방법을 예언해준다. 상층의 양패 무리와 하층의 거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은 B-1)처럼 순풍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나게 됨으로써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맞는다. 당나라로 가야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 해결은 일시적 해결일 수밖에 없다.

41) 사회계층 간에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상층의 하층에 대한 지배가 가능할 때 위계질서가 공고해짐으로 상층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하층을 압박하는 현상은 으레 존재한다.

하층의 거타지는 B-2)에서 서해용을 만나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받는다. B-3)에서처럼 사미승의 등장으로 용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거타지가 B-4)에서처럼 활을 쏘아 서해용이 위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서해용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러나 거타지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서해용은 C-1)~C-3)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딸을 주고, 거타지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그는 거타지로 하여금 당나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용의 호위를 받게 한다.

서해용은 딸을 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다른 용들로 하여금 거타지를 호위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타지에게 도움을 청하던 무기력한 용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서해용의 보답으로 하층의 거타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C-1)에서와 같이 용의 호위를 받아 당나라에 도착한다. 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런데 당나라 사람들은 용의 호의를 받고 온 거타지를 C-2)처럼 보통 인물이 아니라 추경한다. 당나라 사람들은 양패·거타지 무리에게 연회를 베풀고, 금과 비단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C-2)는 하층을 대표하는 거타지와 군사들뿐만 아니라 상층의 양패 무리를 비롯한 모두의 문제 해결을 보여준다. 즉, 둘째 부분의 이야기는 상층과 하층 그리고 서해용 모두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첫째와 둘째 부분의 이야기는 대립 구도를 보여준다. 왕거인 이야기에서는 신라 내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거타지 이야기에서는 신라 외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 왕거인 이야기에서 지식인 왕거인은 위기 → 위기극복 → 문제 해결의 국면을 맞았으나 왕실 세력과 국민은 위기 → 위기극복 시도 → 좌절로 문제 해결을 피하지 못한다. 천신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늘도 왕거인의 위기극복을 도와 주기는 했으나, 다른 계층들의 문제 해결에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다.

결국 왕거인을 제외한 모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는 사회계층 간의 연대를 피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 해결의 실패로 보인다. 이에 반해 거타지 이야기는 신라 외부를 배경으로 상층을 대표하는 왕실세력과 양패 무리 그리고 하층을 대표하는

거타지를 비롯한 바다의 신<sup>42)</sup>인 서해용 모두 위기 → 위기극복 → 문제 해결을 보인다. 이 이야기의 문제 해결은 바로 하층인을 중심으로 한 아래에서 위로의 연대를 통해 가능했다. 하층을 대표하는 거타지와 바다의 신 서해용 그리고 상층을 대표하는 양패 무리들이 모두 문제를 해결한다. 서술층위를 통해 살펴본 결과 편찬자는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거타지의 문제와 양패 무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용은 사미승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조차 보호하지 못할 만큼 나약하다고 한다. 사미승은 주문을 외워 용 가족의 간을 빼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거타지가 쏘자 여우로 변한다. 그렇다면 용을 괴롭힌 것의 실체는 여우라는 것이다. 왜 여우가 용을 괴롭혔을까? 그리고 용은 왜 사미승으로 변한 여우에게 괴롭힘을 당했는가? 여기서 화자가 의도적으로 사미승인 승려를 여우로 변하게 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든다.

서해용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미승을 활로 쏘아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풍랑을 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한 그가, 거타지라는 궁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 그가 왜 거타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을까. 풍랑을 일으키는 능력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사미승을 물리칠 만큼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나, 사미승을 대표하는 불교와의 협력관계가 너무 견고하기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사미승(여우)<sup>43)</sup>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가정이 모두 가능하다.

둘 중 어느 것을 택한다 해도 결국 거타지의 도움이 있지 않고서는 사미승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서해용의 문제이다. 서해용의 문제를 통해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용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보인다. 서술층위를 건너내고 인물층위를 복원해 보아야 하겠다. 인물층위의

42) 첫째 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신의 존재로 천신이 등장한다. 둘째 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천신에 대응하는 존재로 서해용을 삼아도 좋을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 서해용은 비록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43) 여우는 신성성을 지닌 동물로 향(香)을 살라 제(祭)를 올리면 집안을 평안하게 해주고 오곡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전해진다는 논의(신태수, 앞의 논문, 2005, 411~412쪽)를 참고하면 여우는 도속신앙의 존재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첫째 부분에서의 천신과 둘째 부분에서의 여우는 신앙의 대상에서 조금 떨어져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추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복원이 가능해야만 이중적 시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적 시선을 알아보기 위해 서술층위를 건너내고 인물층위의 측면에서 보이는 둘째 부분 A, B, C에서 용의 행적을 살펴본다.

용의 행적

둘째 부분 A : 서해용이 풍랑을 일으켜 양패·거타지 무리의 운행을 저지한다.

둘째 부분 B : 서해용이 나타나 거타지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여우를 제거해 줄것을 부탁한다.

둘째 부분 C : 서해용이 보답으로 딸을 꽃으로 변화시켜 거타지에게 주고, 다른 두 용으로 하여금 거타지를 호위하게 해 거타지가 당나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부분 A에서는 간접적으로, 둘째 부분 B와 C에서는 직접적으로 용의 행적이 드러난다. 둘째 부분 A에서 용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뒤 상황을 추정해 보면 용이 풍랑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은 기상을 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부분 B에서 용은 전면에 등장한다. 전면에 등장한 용은 여우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각축의 상황은 용에게 불리하다. 여우가 토속신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우가 용을 제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우가 기상을 관장하는 용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여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것으로 천신과 다른 토속신앙에 대한 존숭<sup>44)</sup>은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사라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천신과 토속신인 여우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용의 위상을 높이는 꼴이 되었다. 천신과 토속신인 여우가 부정적이 되면

44) 역사적 세계관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는 논의(신태수, 「수로부인설화의 다층적 주제와 그 콘텐츠 방안」, 『국학연구론총』 10, 태민국학연구원, 2012, 127~128쪽)를 참고하면 토속신앙에 대한 존숭이 역사적 세계관에 짓눌려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서해용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칭적 세계관이 역사적 세계관을 뚫고 나간 흔적이 보인다.

서, 그들이 가진 위상이 고스란히 용에게 전달되고<sup>45)</sup> 있기 때문이다. ‘행적의 전이’의 구성이 여기에서도 보인다. 용은 거타지에게 도움을 청한다. 거타지는 활을 쏘아 여우를 제거한다. 거타지의 여우 제거는 토속신앙인 여우가 더 이상 인간의 숭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간인 거타지는 여우와 용 두 토속신앙 중에 용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용은 거타지와 협력을 통해 높은 신직<sup>46)</sup>을 부여받았다고 하겠다. 둘째 부분 C는 둘째 부분 B에서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통해 천신과 여우의 위상이, 용에게 전이되어 용의 위상이 정점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변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용에게 명령하여 거타지의 호위를 돕는다. 용신과 결합한 거타지이기에 당나라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거타지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둘째 부분 A와 둘째 부분 C의 용은 권위를 가진 모습인데 반해 둘째 부분 B는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둘째 부분 A와 둘째 부분 C 그리고 둘째 부분 B 사이에는 서술층위의 또 다른 구성이 숨어 있음을 뜻한다. 둘째 부분 A와 둘째 부분 C 그리고 둘째 부분 B 사이에서 보이는 이중적 시각, 그것은 ‘시각의 괴리’라는 구성이다. ‘시각의 괴리’는 연대를 위한 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인다. 나약한 용이 등장해야만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존재와의 연대를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이다. ‘행적의 전이’로 위상이 높아진 용이지만 여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때문에 용은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존재 또한 용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설화는 용과 하층, 상층의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연대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으로 설화의 창작 배경이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용성(龍聖)의 구현으로 상대자인 인간이 용과 대등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

45) 『삼국유사』 용설화에서 불교신앙과의 관계가 보이는 곳에서 용은 항상 불교신앙에 교화되거나 불교신앙의 교화를 돕는 존재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46) 신의 직분이 높아진다는 것은 성(聖)의 표출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만파식적>,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 인물층위를 복원한 결과 모두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존재한다. <원성대왕>에서는 ‘대상의 교체’라는 구성을 더 추가하였다. 또한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시각의 괴리’라는 구성이 적용되었다. <만파식적>,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은 행위의 행적이거나 자취가 다른 곳으로 옮겨감을 뜻한다. ‘행적의 전이’라는 동일한 구성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에 세 자료를 같은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 3. 용성(龍聖) 구현형 설화의 의미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그리고 <진성여대왕거타지>는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통해 용성(龍聖) 구현을 하고 있다. 이때 구현된 용성(龍聖)은 상대자인 인간의 권위를 용과 대등하게 만들어 준다. 즉, 용과 상대자인 인간의 조화<sup>47)</sup>를 보여준다. 하지만 용성(龍聖) 구현의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의 경우 서술층위에서 간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된다. 반면,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서술층위에서 직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되었다. 동일한 유형은 공통점을 가지기에 동일 유형으로 묶일 수 있다. 그런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방법 차이는 동일 유형인 자료들 간의 이질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왜 동일한 유형에서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만파식적>은 ‘신문왕의 권위 향상’이라는 창작 배경을 가짐으로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취해 용의 행적을 왕의 행적으로 전이시킨다. <만파식적>의 서술층위에서 ‘신문왕의 권위 향상’은 징조+

47) 조화는 어울림을 뜻한다. 용성(龍聖) 구현의 자료들에서는 용과 상대자인 인간이 서로 어울리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다.

징조의 실현+증여+소유의 단계를 거둬하면서 이루어진다. ‘왕의 권위 향상’은 간접적으로 ‘용의 권위’를 담보로 한다. 때문에 <만파식적>은 간접적인 용성(龍聖) 구현을 보이는 설화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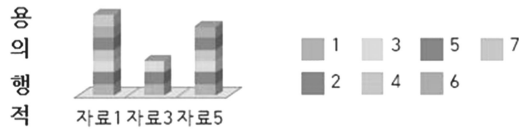
<원성대왕>은 ‘원성왕의 권위 향상’이라는 창작 배경을 가짐으로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취해 용의 행적을 왕의 행적으로 전이시켰다. <원성대왕>의 서술층위에서 ‘원성왕의 권위 향상’은 신의 조력+소유+조력자+구출자의 단계를 거둬하면서 완성된다. <원성대왕>에서도 <만파식적>과 같이 ‘왕의 권위 향상’은 간접적인 ‘용의 권위’를 담보로 한다. <원성대왕> 또한 <만파식적>과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용성(龍聖) 구현을 보이는 설화이다.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창작 배경 때문에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취했다. <진성여대왕거타지>의 서술층위 첫째 부분에서 천신과 상층 지식인의 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둘째 부분에서는 상층과 하층 그리고 용의 결합을 통해 각 계층의 문제가 아울러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문제 해결의 결과가 다르게 제시되어 나타나기에 창작배경이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천신과 여우의 행적이 용의 행적으로 쌓이게 된다. 이는 용의 위상을 높여 연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용의 위상을 부각시켜야 하므로 서술층위에서 직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된다.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그리고 <진성여대왕거타지>의 용 형상이 쌓여 <표 1>처럼 나타난다.

#### 용의 행적

- |            |  |
|------------|--|
| <만파식적>     | : ① 기이한 징조+② 기상변화+③ 징조의 실현+<br>④ 예언+⑤ 예언의 실현+⑥ 증여+⑦ 문제<br>해결 |
| <원성대왕>     | : ① 조력자+② 증여+③ 문제 해결   |
| <진성여대왕거타지> | : ① 천신·여우의 권위 부여+② 기상변화+③ 변<br>신+④ 증여+⑤ 호위+⑥ 문제 해결           |

<표 1>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그리고 <진성여대왕거타지>의 세 자료는 모두 ‘행적의 전이’라는 구성을 취해 용의 행적을 단계적으로 적층<sup>48)</sup>시키고 있었다. 또한 적층되는 용의 행적은 용의 위상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에서는 왕들을 우선시해야 하므로 서술층위에서 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연대를 위해서 권위를 확보한 용이 필요하므로 서술층위에서 직접적으로 용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은 서술층위에서 간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되는 설화이며,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서술층위에서 직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되는 설화다. 설화가 간·직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되나 상대자인 인간이 용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자를 A형 설화, 후자를 B형 설화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A형 설화는 왕이 등장하는 경우로 ‘행적의 전이’를 통해 용성(龍聖) 구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B형 설화는 용과 상층, 하층이 모두 등장하는 경우로 용성(龍聖) 구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A형에는 용과 상대자인 상층이, B형에는 용과 상대자인 상층 그리고 하층이 등장하므로, 등장하는 인물의 차이에 의해 용성(龍聖) 구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또한 A형 설화는 상층이 가진 문제 해결만을 보이고, B형 설화는 모든 계층의 문제를 아울러 해결한다. A형과 B형 설화가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문제 해결의 측면 또한 두 유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지렛

48)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은 ‘왕의 권위 향상’→‘용의 위상 향상’이고,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천신의 권위+여우의 권위’→‘용의 위상 향상’으로 나아간다.

대는 인물 간의 관계와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인다. 두 유형의 설화를 인물 간의 관계와 문제 해결 방법의 측면에서 다시 들여다본다.

A형 설화인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그리고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설화의 배경이 각각 100년의 시차를 가진다. 또한 A형 설화의 인물인 신문왕과 원성왕 그리고 B형 설화의 인물인 진성여왕 모두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시대의 왕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많은 문제를 가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었을 것이다. 또한 A형의 설화에서는 용과 상충이 등장하고, B형의 설화에서는 용과 상충 그리고 하충이 등장해 차이를 보인다.

A형 설화인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의 왕들은 공통적으로 왕의 권위를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먼저 <만파식적>의 신문왕은 기반이 부족했다.<sup>49)</sup> 자신을 지지할 세력이 많아야 안정적으로 정국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신문왕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설화를 통한 왕의 권위 향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왕의 권위 향상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용성(龍聖) 구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만파식적>에서 용과 상대자인 왕이 연대한다. 하지만 하충은 연대에서 배제된다. 배타적 연대를 보이기에 문제 해결의 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원성대왕>의 원성왕은 굴욕적인 국가 상황과 왕의 권위 추락을 복원<sup>50)</sup>해야만 했다. <만파식적>에서와 같이 왕의 권위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추락한 왕의 권위를 복원해야만 했다. 추락한 왕의 권위를 복원하기 위해 서술층위에서 ‘대상의 교체’라는 구성을 취한다. 나약한 왕을 나약한 용으로 교체해야만이 권위가 복원된다. 때

49) 신문왕은 중고기 진흥왕계와 중대를 여는 무열계 왕권의 대립 투쟁을 겪어야 했다(이동철, 앞의 책, 2005, 207쪽).

50) <원성대왕>에 등장하는 호국용은 무열왕계의 왕권을 상징한다. 설화에서 왜소한 호국용을 원성왕이 구해주게 함으로써, 무능한 무열왕계 왕권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대신 능력 있는 내물왕계인 원성왕의 왕위 계승이 필연적임을 설화를 통해 드러냈다(이동철, 앞의 책, 2005, 232~233쪽)고 하고 있다. 호국용에 대한 언급은 동의할 수 없으나, 이 설화가 원성왕의 권위를 향상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은 참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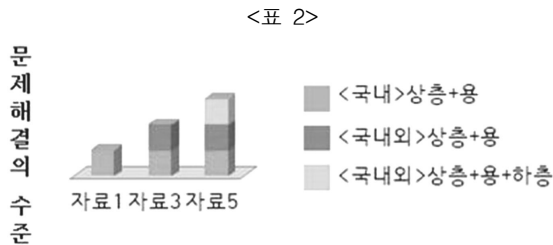
문에 용성(龍聖) 구현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당나라에 대해서도 굴욕적이면 안 된다. 당나라에 잡혀간 나약한 용을 구하면서 당나라 사람들에게 명철한 왕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국내외의 문제를 제시하고 용과 상층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꾀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층과의 연대가 배제되어 있어 문제 해결의 수준이 미약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겠다.

결국 A형 설화에 속하는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은 ‘왕의 권위 향상’이 목적이므로 용성(龍聖) 구현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한 상층과 용의 연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층을 배제시켰으므로 배타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과 간접적 용성(龍聖) 구현이 A형 설화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A형 설화인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의 설화조차 차이를 나타냈는데, <만파식적>의 경우 국내 문제만을 다루었다. 반면 <원성대왕>의 경우 당나라와의 관계가 제시되어 국외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이는 자료들 간의 1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만파식적>보다 <원성대왕>의 경우가 문제 해결의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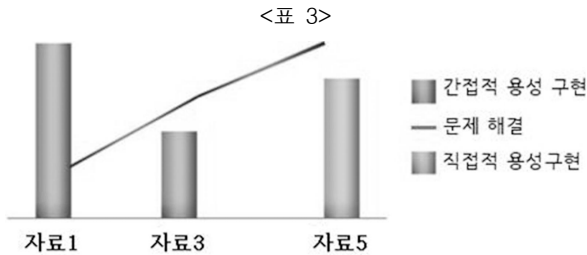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의 진성여왕 또한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졌다.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만 왕권이 유지된다. 문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화는 서술층위에서 ‘시각의 괴리’라는 구성을 통해 용의 나약함과 뛰어난을 동시에 보여준다. 나약함은 연대의 동기가 되고, 뛰어난은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었다. 다른 계층과 용의 연대를 필요로 함으로 직접적으로 용성(龍聖)이 구현된다.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 용과 하층을 대표하는 거타지의 연대는 상층까지 아우르는 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 연대를 통해 용의 문제, 거타지의 문제 및 상층의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기에 문제 해결의 수준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하겠다.

결국 B형 설화에 속하는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 목적이므로 용성(龍聖) 구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한 용과 상층 그리고 하층의 연대가 형성되어 각 계층의

문제를 아울러 해결한다. 각 계층이 연대를 도모하므로 배제된 연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과 직접적 용성(龍聖) 구현이 B형 설화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만파식적>,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의 문제 해결의 수준은 <표 2>와 같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해 본 결과 A형 설화인 <만파식적>은 용성(龍聖) 구현을 간접적으로 강화했으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외 문제와 하층의 문제는 제외되었다. 배타적 연대와 한정된 문제만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의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다른 A형 설화인 <원성대왕>은 추락한 권위의 복원이 필요했으므로 용성(龍聖) 구현을 간접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문제 해결 과정의 측면에서는 국내외 문제를 두루 해결하고 있으므로 <만파식적>보다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하층은 배제되었다.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용에 대한 연대 동기와 동력이 모두 필요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용성(龍聖)을 구현한다. 또한 국내외 문제를 두루 제시하고, 상층과 하층 그리고 용의 연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기에 문제 해결의 수준이 가장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자료에서 나타나는 용성(龍聖) 구현과 문제 해결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3>에서와 같이 A형 설화인 <만파식적>은 간접적 용성(龍聖) 구현의 측면에서는 가장 돋보이고 있으나 문제 해결의 수준은 가장 떨어졌다. A형 설화인 <원성대왕>은 간접적 용성(龍聖) 구현의 측면에서는 저조하지만 국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문제 해결 수준에서의 향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용성(龍聖) 구현의 정도가 <만파식적>보다는 미약하나 직접적인 용성(龍聖) 구현을 보이고 있고, 문제 해결 방법 또한 가장 향상된다. <원성대왕>은 <만파식적>의 영향을, <진성여대왕거타지>는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의 영향을 받는다.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그리고 <진성여대왕거타지>는 상호 영향 관계를 이룬다고 하겠다.

A형 설화인 <만파식적>과 <원성대왕> 그리고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는 각각 100년의 시차를 두고 문제 해결의 수준이 지속적인 향상을 보인다. 용성(龍聖) 구현의 측면에서도 간접적 → 직접적인 현상을 보인다. 이는 “연대”라는 큰 과업 때문에 발생한다. A형 설화인 <만파식적>과 <원성대왕>은 한정된 연대만을 형성했다. 이에 비해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는 확장된 연대를 형성한다. B형 설화인 <진성여대왕거타지>의 확장된 연대는 A형 설화인 <만파식적> → <원성대왕>에서와 같이 간접적으로 줄어들었던 용성(龍聖)의 부활을 추구하고 직접적인 용성(龍聖) 구현을 보여준다. 때문에 “연대”의 축소와 확장에 따라 A형 설화는 B형 설화에, B형 설화는 A형 설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영향 관계에 있는 용성(龍聖) 구현형의 설화들은 “확장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 향상하기”라는 관계망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다. 배타적 “연대”를 가지는 A형의 설화들은 간접적으로 용성(龍聖) 구현을 보여 용성(龍聖)이 구현된 정도가 약화된 모습을 띤다.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도 문제 해결의 수준이 향상되지 못한다. “연대”가 확장되는 B형의 설화는 직접적인 용성(龍聖) 구현을 보이고 있으나, 용성(龍聖)이 강하게 구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수준은 가장 향상되었다. 때문에 “확장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 향상하기”는 용성(龍聖) 구현형의 구성 원리가 된다. “연대”의 확장이 이루어지면 용성(龍聖) 구현의 정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용성(龍聖) 구현형의 설화에서는 용성(龍聖) 구현의 정도가 약화된 A형과 용성(龍聖) 구현의 정도가 조금 강화된 B형 설화만이 보일 뿐이다. 화자는 서술층위를 통해 A형의 설화를 지양하고 B형의 설화를 지향한다. B형 설화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B형 설화는 용성(龍聖) 구현이 조금의 강화를 보일 뿐 지속적인 강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만약 설화에서 용성(龍聖) 구현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연대”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즉, 연대의 실패는 “확장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 향상하기”라는 구성 원리에 위배된다. 편찬자인 일연은 구성 원리를 위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기에 용성(龍聖)이 강화되는 설화를 의도적으로 실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는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형의 설화를 한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한계를 낳았다. 하지만 용성(龍聖) 구현형의 “확장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 향상하기”라는 구성 원리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으며, 용성(龍聖) 구현을 통해 용과 상대자인 인간이 서로 배척하거나, 배척 당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4. 용성(龍聖) 제거형 설화와의 상관관계

『삼국유사』 소재 용설화의 또 다른 유형에는 용성(龍聖) 제거형

이 있다. 용성(龍聖) 제거에 속하는 자료는 상대자인 인간이 용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큰 설화이다. 제거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료에서는 용의 성(聖)이 인간에 의해 침해당한다. 때문에 용성(龍聖)은 없어져 버린다. 용성(龍聖)이 제거되었으므로 용은 좌절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용을 굴복하게 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는 설화가 기이 제2의 <수로부인> 설화라고 하겠다. 용성(龍聖) 구현과 용성(龍聖)의 제거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용성(龍聖) 구현형은 용의 성(聖)이 가시화되어 상대자인 왕의 권위를 향상해주는 반면, 용성(龍聖) 제거형은 용의 성(聖)이 부정되고 폄하된다. 용의 성(聖)이 부정되고 폄하되니, 용의 속(俗)이 가시화된다고 하겠다. 이처럼 용의 성(聖)과 속(俗)이 상반되는 두 유형을 모두 『삼국유사』 소재 용설화에 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한 쪽의 유형만을 제시하면 될 터인데, 상반되는 두 유형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용성(龍聖) 제거형 설화를 분석하여 용성(龍聖) 구현형 설화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비교를 통해 편찬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술층위에서 보이는 <수로부인>의 구성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절벽의 철쭉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친 노인을 다룬 대목이고, 둘째 부분은 노인이 알려준 방도로 용에게 잡혀간 수로부인을 되찾는 대목, 셋째 부분은 수로부인이 용궁에서 겪은 기이한 일을 다룬 대목이고, 넷째 부분은 종종 신물에게 잡혀간 수로부인과 부인과 관련해 전해지는 노래에 관한 대목이다. 네 부분은 노인<sup>51)</sup>의 권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시된다. 첫째 부분에서는

51)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에 등장하는 노인을 동일 인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두 부분에서 각기 등장한 노인은 범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윤영옥의 연구(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170쪽)에서 두 노인의 정체를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촌노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은 일반적으로 인류의 오랜 지혜나 집단 무의식의 인격화로 간주되어 유태교에서는 신비적 원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강등학, 「현화가의 심층」, 『새국어교육』 33, 한국국어교육학회, 1981, 76~94쪽)는 것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촌노라면 천장 절벽의 철쭉꽃이나, 용에 의해 납치당한 수로부인을 구해오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범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을 혼자서만 갈 수 있다고 하고, 둘째 부분에서는 범인들이 계책을 마련치 못해 주저앉아 있을 때 계책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고, 셋째 부분에서는 신물들이 종종 수로부인을 납치한 사실을 제시하여, 노인의 계책이 수로부인을 구해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넷째 부분에서는 노인에 의해 불려진 노래를 제시한다.

네 부분이 각기 천장절벽 도달로써의 권위 향상, 계책 마련으로써의 권위 향상, 신물들의 납치 행위로써의 권위 향상, 증거 노래로써의 권위 향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천장절벽 도달, 계책 마련, 신물들의 납치 행위, 증거노래가 계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권위의 양상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 천장절벽 도달로써의 권위 향상보다는 계책 마련으로써의 권위 향상이, 계책 마련으로써의 권위 향상보다는 신물들의 납치 행위로써의 권위 향상이, 신물들의 납치 행위로써의 권위 향상보다는 증거 노래로써의 권위 향상이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수로부인><sup>52)</sup>

첫째 부분 : 절벽의 철쭉꽃을 꺾어 수로부인에게 바친 노인.

- 1) 성덕왕 때에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을 할 때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 2) 그 곁에 있는 바위 봉우리의 높이가 천장(千丈)이나 되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만발하였다.
- 3)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철쭉꽃을 꺾어 달라고 좌우를 둘러보고 말했으나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했다.
- 4) 한 노인이 암소를 몰고 그곳을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가지고 와 노래를 지어 바쳤다.

둘째 부분 : 노인이 알려준 방도로 용에게 잡혀간 수로부인을 되찾음.

- 1) 순정공이 이틀을 순행하며 임해정에 다다라 점심을 먹고 있었다.
- 2) 바다의 용이 나타나 홀연히 부인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 3) 순정공이 땅을 치며 주저앉았으나 아무런 계책이 없었다.

52) 一然, 『三國遺事』, <水路夫人> 紀異 第二.

- 4) 한 노인이 나타나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하며 지역 내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5) 순정공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나와 바치었다.

셋째 부분 : 용궁에서 수로부인이 겪은 기이한 일.

- 1) 공이 바다 속 이야기를 물으니 부인이 칠보로 장식된 궁전에 음식은 달고 향기로운 것이 인간의 음식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 2) 부인의 몸에서는 기이한 향기가 풍기었는데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다.

넷째 부분 : 미모의 수로부인이 자주 신물들의 납치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노인과 관련되어 전하는 해가, 현화를.

- 1) 부인은 그 용모가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빈번히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에는 신물(神物)들에게 붙들림을 당하곤 하였다.
- 2) 이때 여러 사람이 부르던 노래가 <해가>이고, 노인의 부른 노래는 <현화가>이다.

<수로부인> 설화의 서술층위에서 ‘노인의 권위 향상’은 노인1의 문제 해결+노인2의 문제 해결+신물의 꺾기+증거물 제시의 단계를 거듭하면서 향상된다. 설화가 ‘노인의 권위 향상’ 과정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창작배경을 ‘인간능력의 고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노인을 촌노로 보면, 촌노는 마을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이므로, 타향인인 순정공 무리가 감히 올라갈 수 없는 천장절벽을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았거나, 철쭉꽃이 핀 다른 장소를 알고 그것을 꺾어다 주었을 것이다. 또 노인은 용에게 잡혀간 수로부인의 회귀 방법을 알아 순정공 무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은 해결자가 된다. 미해결에 늪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노인의 권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으며, 노인으로 대표되는 인간 또한 권위가 향상된다고 하겠다.

<수로부인>의 창작배경을 고려한다. <수로부인>의 창작배경은 ‘인간 능력의 고양’이다. 서술층위에서 ‘노인의 권위 향상’ 과정을 그리고 있으니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인간의 능력을 고양하려면, 반

대로 신으로 표상되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한다. 설화에서는 용 또는 신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서술층위 둘째 부분에서 용과 신물을 ‘掠’과 ‘傍生’으로, 셋째 부분에서는 ‘掠攬’으로 폄하한다. 이러한 양상을 노인의 권위 향상 단계와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의 위상 확보

- ① 노인1의 문제해결+② 노인2의 문제 해결+③ 신물의 폄하+④ 증거물 제시

#### 용과 신물의 인식

- ① 掠+② 傍生+③ 掠攬

노인에 대한 권위 향상의 양상은 두 번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 인간과 대비되는 신물을 등장시켜 폄하, 증거물을 제시하여 향상해 나간다. 단계와 단계는 유기적이어서 단계 하나를 거치는 동안 향상된 권위는 다음 단계의 권위 아래에 놓이게 된다. 반면 용과 신물에 대한 인식은 단계를 거듭하면서 폄하되고 있다고 하겠다. 용과 신물은 ‘掠’ 또는 ‘傍生’, ‘掠攬’한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七寶宮殿 所饒甘滑香潔 非人間煙火 且夫人衣襲異香’으로 표현해 기이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서술층위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므로, 용과 신물로 대표되는 토속신앙은 성(聖)이 제거되어 인간에게 굴복<sup>53)</sup>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용과 신물에 대한 인식은 세 번의 수난을 겪었다고 하겠다. 세 번의 수난을 겪는 동안 용과 신물에 대한 인식은 폄하될 수밖에 없었다. 용과 신물을 신으로 인식하고 숭배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폄하는 성(聖)의 제거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이 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53) 힘이 모자라 복종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서술층위에서 “衆口鑠金 何不畏衆口乎”라 하여 인간 능력의 무한함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水路姿容絕代”이라 하여 신(神)도 인간에게 반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 있다. 두 표현은 모두 인간의 권위를 향상시키는 것들이다. 때문에 용이나 신물인 토속신앙은 인간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수로부인> 설화의 서술층위에서 용은 인간과 적대적이다. 서술층위의 둘째와 셋째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이 보인다고 하겠다. 순정공의 무리는 용을 수로부인을 납치한 대상으로 보고 노인은 용을 하찮은 동물로 인식한다. 하지만 설화의 배경인 성덕왕 14년 6월<sup>54)</sup> 기사를 통해 실제로 그가 기우제를 지낸 기록이 보인다. 이는 성덕왕 당대에도 여전히 용신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용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에 용을 완전한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서술층위의 둘째와 셋째 부분에서 수로부인의 용궁체험을 기이함으로 표현한다. 서술층위의 이러한 현상은 설화의 창작배경에 기인한 것이다. 서술층위에서 화자는 노인, 즉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궁구하다보니 인물층위를 압박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다.

설화의 화자가 ‘노인의 권위 향상’에 주력한 사실은 창작배경인 ‘인간 능력의 고양’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을 고양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박진태는 수로부인 설화를 인간들의 가치관이 신분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 민속신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과정을 그리고 있다<sup>55)</sup>고 보았다. 인간들의 가치관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 가면서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것이다. 때문에 서술층위의 구성을 ‘노인의 권위 향상’에 두고 단계적으로 권위를 향상시켜 나간다. ‘노인의 권위 향상’이 우선시되어야 하니 용과 신물은 화자에 의해 세 번의 수난을 겪게 되고, 이러한 수난의 결과 용의 성(聖)을 퇴색하게 만들어 결국 성(聖)이 제거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로부인> 설화에서 두 양상의 대비는, 즉 인간으로 대표되는 노인인 신으로 대표되는 용과 신물은 서로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인간의 권위는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신의 권위는 점차적으로 쇠락해간다. 이러한 서술층위의 대비는 인간의 사고 변화 과정을 그대로

54) 14년 6월, 큰 가뭄이 들자, 왕이 하서주 용명에 사는 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는데, 곧 비가 열흘 동안이나 계속 내렸다.

金富軾, 『三國史記』, 新羅 本紀 第八 <聖德王>.

55) 박진태, 『삼국유사』 용신설화의 유형과 작품양상, 『고전문학과교육』 21, 한국고적문학교육학회, 2011, 381쪽.

반영하고 있는데, 변화의 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난의 과정에 의해 점차적으로 변화를 겪었다고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용과 신물에 대한 시각의 이중성이 설화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용은 토속신앙으로 여전히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에,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설화가 신에 대한 숭배가 사라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기에, 결국 용성(龍聖) 제거형인 <수로부인>은 ‘신본주의 탈피하기’라는 구성 원리를 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구성 원리를 통해 용성(龍聖) 제거가 이루어진다.

용성(龍聖) 구현형은 세 가지 유형 중 용의 위상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 유형은 용의 성(聖)이 두드러진다. 두드러진 용성(龍聖)은 부족한 왕의 권위를 위해 이용된다. 왕은 용성(龍聖)을 통해 권위를 회복하고 정당화한다. 용성(龍聖) 제거형은 용의 위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용이 속(俗)된 것으로 인식된다. 용성(龍聖)을 속된 것으로 폄하하니 상대적으로 인간의 권위는 향상된다. 이처럼 상반되는 두 유형의 설화를 제시한 이유를 편찬자가 설화를 편찬할 당시 두 유형의 설화가 존재했으므로, 두 가지 유형의 설화를 『삼국유사』 용설화에 실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두 유형의 설화가 전하고 있었다는 개연성은 확보된다.

이 개연성을 바탕으로 용성(龍聖) 구현형에서 용을 성(聖)스럽게 생각하는 기류와 용성(龍聖) 제거형에서 용을 속(俗)되게 생각하는 기류가 편찬자인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당시에 존재했다고 하겠다. 편찬자인 일연은 두 가지 기류를 『삼국유사』 용설화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두 유형은 서로 상충된다. 어느 한 쪽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상충되는 유형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이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일연이 ‘문화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자칭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문화전달자<sup>56)</sup>는 있는 사실

56) 적어도 일연 당대에 용설화에서 세 가지 기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을 충실히 전해준다.

일연은 어느 한 기류가 또 다른 기류에 상충된다고 해서 한 쪽을 배척하지 않았다. 서로 상충되는 기류를 기록을 통해 전하고 있기에 이러한 추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용성(龍聖) 구현형과 용성(龍聖) 제거형이 제시된 이유는 일연의 편찬의도 때문이라고 하겠다. 일연은 용성(龍聖) 구현형을 통해 용이 성(聖)스럽다는 신분주의를 제시하고, 용성(龍聖) 제거형을 통해 용이 속(俗)되다는 인간중심주의를 제시해 양 가치관이 일연 당대에 여전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들 유형의 용설화를 통해 우리는 일연의 문화전달자로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 5. 결론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용성(龍聖) 구현형에 속하는 설화는 기이 제2의 <만과식적>, <원성대왕>, <진성여대왕거타지>이다. 이들 설화에서는 용의 성(聖)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용성(聖)이 두드러지니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다. 이 유형의 설화는 “확장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 향상하기”라는 구성 원리를 가진다. 때문에 용성(龍聖)이 강화되어 있는 설화를 의도적으로 신지 않았다고 하겠다. 용성(龍聖)이 강화되어 나타나면, 연대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형 설화에서는 용성(龍聖)이 강화된 설화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형 설화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용성(龍聖) 구현형의 “확장된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준 향상하기”라는 구성 원리를 통해 “연대”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으며, 용성(龍聖) 구현을 통해 용과 상대자인 인간이 서로 배척하거나, 배척 당함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의의를 가진다.

『삼국유사』 소재 용설화에는 용성(龍聖) 제거형도 존재한다. 용성(龍聖) 제거형은 용성(龍聖) 구현형과 상충된다. 하지만 일연은 문화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일연 당대에 존재했던, 용을 성(聖)스럽게 생각하는 기류와 용을 속(俗)되게 생각하는 기류 모두를 기록을 통해 전하고 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일연의 균형적인 태도로 인해 오늘날 우리는 일연 당대의 용에 대한 인식을 『삼국유사』를 통해 살필 수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 삼국유사, 용성(龍聖), 구현, 신문왕, 원성왕, 진성여왕, 구현, 연대, 문제 해결, 구성 원리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金富軾, 『三國史記』

一 然, 『三國遺事』

강등학, 「현화가의 심층」, 『새국어교육』 33, 한국국어교육학회, 1981, 76~94쪽.

김내균, 「哲學的 思惟 이전의 神話的 思考」, 『철학탐구』 10, 중앙대학교부설 중앙철학연구소, 1993, 47~59쪽.

金鉉龍, 『韓國古說話論』, 새문사, 1994.

박다원, 「『三國遺事』 <惠通降龍> 설화의 공간과 인물 관계」, 『韓民族語文學』 68, 2014, 39~71쪽.

서영대·송화섭 엮음, 『용, 그 신화와 문화-한국편』, 민속원, 2002.

신태수, 「『殊異傳』 逸文의 神話的 性格과 교환 可能性의 실현 양상」, 『어문학』 85, 한국어문학회, 2004, 185~216쪽.

\_\_\_\_\_, 「<桃花女·鼻荊郎>說話의 構成原理와 世界觀의 向方」, 『韓民族語文學』 45, 2004, 449~476쪽.

\_\_\_\_\_, 「『三國遺事』 <神呪篇>을 통해 본 土俗信仰의 向方」,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402~428쪽.

\_\_\_\_\_, 「수로부인설화의 다층적 주제와 그 컨텐츠 방안」, 『국학연구론총』 10, 태민국학연구원, 2012, 111~142쪽.

- 안진태, 『신화학 강의』, 열린책들, 2004.
- 윤영옥, 『신라시가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0.
- 이동철, 『한국 용설화의 역사적 전개』, 민속원, 2005.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5.
- 李京和, 「한·일 龍蛇 설화의 비교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4.
- M. 일리아데, 이은봉 옮김, 『성(聖)과 속(俗)』, 한길사, 2008.
- 로지 책슨,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문학동네, 2004.
- J. G. Frazer, 김상일 역, 『황금가지』, 을유문화사, 1996.

## 2. 단행본

-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 혜안, 1997.
- 김갑동,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2005.
- 김영태, 『新羅佛敎研究』,民族文化史, 1987.
- 최강식, 『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 3. 논문

- 權相老, 「韓國古代信仰의 一變-미리(龍)信仰과 미륵(彌勒)信仰에 對하여-」, 『佛敎學報』 1, 佛敎文化研究院, 1963, 79~108쪽.
- 郭丞勳, 「新羅 下代 後期 彌勒下生信仰의 盛行과 意義」, 『韓國思想史學』 15, 韓國思想史學會, 2000, 59~92쪽.
- 김남윤, 「신라 말 고려 초의 사회변동과 불교」, 『내일을 여는 역사』 17, 내일을 여는 역사, 2004, 289~295쪽.
- 박희택, 「신라 하대의 불교와 정치」, 『동양정치사상사』 7,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125~138쪽.
- 윤석효, 「신라 下代의 固有思想研究」, 『역사와실학』 31, 역사실학회, 2006, 5~50쪽.
- 全基雄, 「新羅末期 政治社會의 動搖와 六頭品知識人」, 『한국고대사연구』 7, 한국고대사학회, 1994, 85~134쪽.
- 菜守煥, 「羅末麗初 禪宗과 豪族의 結合」, 『東亞史學』 4, 한국동서사학회, 1998, 103~145쪽.

- 논문 투고 : 2015년 4월 30일
- 논문 심사 : 2015년 5월 11일 ~6월 18일
- 게재 결정 : 2015년 6월 19일

■ 박다원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sky333@ynu.ac.kr

## A Study on the Patterns and Significance of Tales in the Materialization Type of Dragon Sacredness in *Samgukyusa*

Park Da-won\*

[Abstract]

The tales that belong to the materialization type of dragon sacredness in *Samgukyusa* include the second *Manpashikjeok of Gi-i*, *Yongseongdaewang*, and *Jinseongyeodaewanggeotaji*. As the term of materialization implies, those tales are characterized by the prominent exhibition of dragon sacredness. The prominence of dragon sacredness means huge influences on human beings. That type of tales has a composition principle of “improving the problem-solving level through the expanded solidarity,” which means they did not intentionally include tales in which dragon sacredness was reinforced. Once dragon sacredness is reinforced and revealed, there is no more need for solidarity.

The fact that there was no tale of reinforced dragon sacredness in the materialization type of dragon sacredness in *Samgukyusa* resulted in the restriction of the tales in the type. They, however,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through the type’s composition principle of “improving the problem-solving level through the expanded solidarity” and tried to show harmony between the dragon and man with no excluding and being excluded through the materialization of dragon sacredness, thus claiming their significance.

Keywords : *Samgukyusa*, dragon sacredness, materialization, King Shinmun, King Wonseong, Queen Jinseong, solidarity, problem solving, composition principle

---

\* Instructo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Yeungnam University.